

■ 쟁점

1. 제9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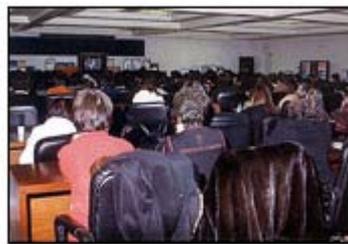


◀ 시상식에 참여한 내빈과 수상자들.

김이환 광고주협회 부회장, 홍완순 현대증권 사장, 김천주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전응덕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기홍 한국광고업협회 회장, 이방주 현대산업개발 사장, 최종렬 한국ABC협회 회장, 채수삼 금강기획 사장 (앞줄 중앙부터 시계방향)

한국광고주협회가 주최하는 제9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이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에서 있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전파부문에 현대증권의 You First '겨울'편(광고회사 금강기획)과 인쇄부문에 현대산업개발의 Think Innovation '달나라, 개마고원, 사막'편(광고회사 웰커뮤니케이션즈)이 수상했으며, 그밖에 19개의 광고가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광고계 인사와 소비자단체 대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축사를 한 전응덕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은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해를 거듭하는 동안 소비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함께 크리에이티브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과 상호 이해증진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윤리성 제고와 함께 사회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광고제작은 광고인 모두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 120여명의 소비자 심사단이 각 부문별 심사를 하고 있다.

한편 김천주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광고상이 있으나 대부분 제작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일 뿐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광고를 평가하는 것은 소비자가 뽑은 광고상이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래서 이 상이 광고주나 광고회사가 제일 받고싶어하는 상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광고제작자가 같이 공감하는 건강한 광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광고를 제작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992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광고주협회가 이 상을 제정한 목적은 좋은 광고를 뽑아 칭찬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광고가 어떤 것인지를 광고주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통해 좋은 광고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좋은 광고를 선정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를 가려내는 안목을 기르게 됨과 동시에 광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3차 본심사를 하고 있다.



▶ 김천주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전파와 인쇄부문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금번 제9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 응모한 광고작품은 총 524편으로, 부문별로는 TV가 305편으로 가장 많고, 신문부문 134편, 잡지부문 64편, 라디오부문 21편이 출품됐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리즈 광고가 많이 출품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광고가 단발성에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병량 한양대 교수, 김민기 경주대 교수, 윤호섭 국민대 교수, 이성옥 소비자단체협의회 부장 등 광고전문가에 의한 1차 심사에서는 소비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던 광고나 모방광고, 비방광고, 허위, 과장광고 등을 우선적으로 가려내어 총 373편이 선정되었다.

제2차 소비자심사단 심사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광고, 마스크 모니터요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9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사 결과 총 155편이 선정되었는데, 매체별로는 TV 74편, 신문 44편, 잡지 25편, 라디오 12편이었다.



▲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수상자에 대한 시상하고 있다.



▲ 제9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기념

김맹년 대한항공 상무, 이방주 현대산업개발 사장, 채수상 금강기획 사장, 정과오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홍완순 현대증권 사장, 김천주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전용덕 광고단체연합회 회장, 이기홍 광고업협회 회장, 리대용 중앙대학교 교수. (앞줄 왼쪽부터)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직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3차 본심사에서는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남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숙희 서울YWCA 부회장, 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김조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부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박인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심사를 맡아 주셨다.

심사위원단은 먼저 소비자심사단에 의해 선정된 155편의 광고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채점, TV부문 8편, 신문부문 6편, 잡지부문 5편, 라디오부문 1편, 캠페인부문 1편 등 총 21편을 선정했으며, 이중 인쇄부문과 전파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각 1편씩 선정했다.

## 수 상 소 감

### 이방주 현대산업개발 사장

이렇게 좋은 상을 마련해주신 한국광고주협회와 저희 회사를 선정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현대산업개발의 주업종이 아파트와 주택입니다. 광고만 잘하는 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소비자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광고를 만들어준 대행사 웰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 홍완순 현대증권 사장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그 어떤 광고상보다 뜻깊고 값진 상입니다.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직접 주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겸허한 마음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다짐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You First'이었습니다. 고객은 금융서비스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고객존중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수상의 영광을 모든 고객과 함께할 것이며 저희 임직원은 고객감동서비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You First'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